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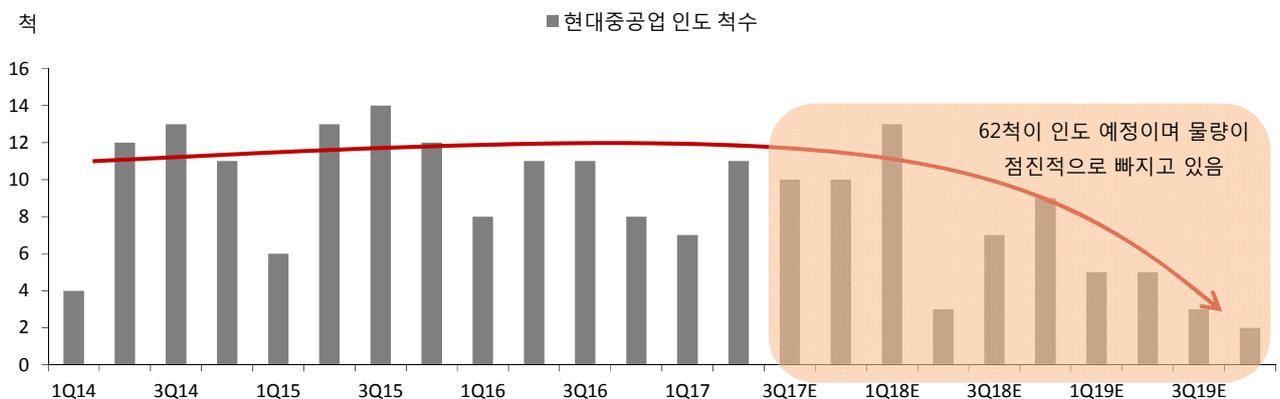
Issue Comment

- ✓ 내년 5월까지 5주씩 돌아가며 순환휴직 돌입
- ✓ 인도 예정 물량이 우하향하고 있음
- ✓ 해양 사업부도 인도 예정 물량이 적어 휴직 가능성 있음

순환휴직 돌입하는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순환휴직을 시행합니다. 해양 부문이 아닌 조선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직원 1인당 5주씩 내년 5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됩니다. 일감이 없어 유휴 인력이 늘어나자 취한 조치라는데 정말 그런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잔고를 보니 내년 1분기를 정점으로 2019년 말까지 꾸준히 인도 예정 물량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척수 기준으로 62척 가량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해양 부문도 순환 휴직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양 사업부도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1건뿐임을 감안하면 유휴인력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국면입니다. 상선이나 해양플랜트나 모두 연초부터 발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결국 도크까지 가동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고부가가치 선종인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마저 중국에게 내어준 점은 대한민국 조선업에 대한 염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인도할 상선 물량은 우하향을 그리고 있음



자료 : Clarksons Research,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